



* 등급정보 (닭고기) *

▷ 21개 업체에서 생산한 362만3천수에 대한 등급판정 실시결과, 1*등급은 144만5천수(39.9%), 1등급은 201만8천수(55.7%)를 차지, 전월대비 7만6천수(2.1%) 증가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 및 출현율

(단위: 수, %)

구분	등급판정수수	품질등급별 출현현황		
		1*등급	1등급	2등급
'09년 1~12 월	37,038,770 (100.0)	13,549,313 (36.6)	21,261,827 (57.4)	2,227,630 (6.0)
'09년 11월	3,546,579 (100.0)	1,421,060 (40.1)	1,954,894 (55.1)	170,625 (4.8)
'09년 12월	3,622,816 (100.0)	1,444,842 (39.9)	2,017,824 (55.7)	160,150 (4.4)

* 축산뉴스 (닭고기) *

‡ 환율안정, 닭고기 수입 급증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수입실적은 4천682톤으로 전년동월(3천84톤)대비 52%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환율 탓에 올해 상반기까지는 수입량이 저조했지만 9월부터 수입량이 늘고 있는 것. 업계 관계자들은 4분기 들어 닭고기 수입이 늘고 있는 원인을 1천400원에 육박했던 원달러 환율이 1천100원 대로 안정을 되찾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닭고기 수입량이 많아진 것은 환율영향이 가장 크다"며 "부분육과 가공육의 경우는 수입산 닭고기를 사용하는 곳이 많고 외식업체 등에서 연말수요를 겨냥해 수입을 늘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면서 급식 등 국내산 닭고기 수요도 늘었지만 여전히 수입산 닭고기를 사용하는 프랜차이즈업체 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계육협회 한 관계자는 "고병원성 시가 발생하지 않은 올해는 전년보다 닭고기 소비가 늘었다"며 "여기에 환율까지 안정세를 유지하다보니 날개나 다리 등 부분육으로 수입하는 업체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한편 11

월에 수입된 4천682톤 중 53.5%인 2천651톤은 브라질, 30.5%인 1천179톤은 미국에서 수입됐다.

‡ 마니커, 보령축산 114억원에 인수

닭고기 가공업체 마니커가 육용 종계와 부화 전문업체인 보령축산을 114억원에 인수했다. 마니커는 지난해 12월 28일 보령축산 소유 종계농장 3개 사업장, 부화장 1개 사업장을 114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령축산은 20만 마리의 종계를 보유하고 주간 35만 마리의 육용 병아리를 생산하는 중견 종계·부화업체다. 보령축산의 인수로 마니커는 약 60만 마리의 종계를 키워 주간 90만 마리 이상의 병아리를 자체 조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마니커는 닭고기 생산량의 절반 가량을 외부에서 구매한 병아리를 키워 공급했으나 이번 계약으로 계열화율이 70% 수준으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